논문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이 경 래* · 이 광 석**

1. 머리말
2.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1)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기: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와 지방사 연구
   2)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대기: 아래로부터의 '역사워크숍 운동'
   3)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기: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콤마넷'
3.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1) 공동체 자생의 아카이브 구축과 지향
   2) 수집대상이 아닌 수집 주체로서의 공동체 복원
   3) 공동체내 아카이브의 자율 통제
   4) 반(反)헤게모니적 내러티브 강조
4. 최근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모델의 부상
   1) 범국가 차원의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그룹'
   2) 지방정부의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3)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파트너십'
5. 결론: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한국적 함의

* 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공인아키비스트(CA)(kyongrae@gmail.com). 주요 논저: "The role of buddhist monks in the development of archives in the Korean middle ages" *American Archivist* (Spring-Summer) 2010;「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기록학연구』제23호, 2010.

**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학과 교수(kslee@seoultech.ac.kr). 주요 논저: *IT development in Korea: A Broadband Nirvana?* Routledge: London, 2012; "The Korean government's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reform: the promise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는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자율적 통제, 내적 소유권이 요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등장한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거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들을 지났다. 최근에는 주류 아카이브 등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거버넌스(협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은 최근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그 기본적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영국형 아카이브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며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 영국의 최근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 공동체, 공동체 아카이브, 풀뿌리운동,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 자치, 거버넌스의 기록, 거버넌스 모델, 도시재생 프로젝트, 콤마넷,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

and perils of digital democratizati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26. No.3, 2009(공저).

▪투고일 : 2013년 6월 5일 ▪최초심사일 : 2013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7월 25일.

1. 머리말

영국은 공동체(community)[1] 아카이브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1960년대 무렵 공동체 개념이 등장한 이래 최근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형성되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사회에서 공동체 또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성이자 종속과 차별에 대한 저항의 행위로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항상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 영국의 역사적·사회적 산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은 북미나 호주 등과도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즉 공동체의 내

1) 공동체(community)란 "로컬러티, 문화, 신념, 배경, 또는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규정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는 대부분 지리적 근거에 의해 결속력을 갖고 발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류학적 지표들, 즉 "성적 취향, 직업, 인종, 신념 또는 이러한 것들이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로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의해 정의되기도 한다.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28. No.2, October 2007, p.153; 설문원, 「로컬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7쪽에서 재인용.) 이상의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에서 정의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역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이나 다문화에 근거한 공동체가, 호주의 경우에는 원주민 공동체가, 영국은 노동자와 인종소수자 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아카이브의 주요 관심사로 취급된다. 한국에서 공동체의 대표적인 형태인 '마을'은, 공동체 중에서 특정 지역에 근거한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한 공동체는 서구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2) Andrew Flinn and Mary Steven,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p.8; S. Hall, "Constituting an archive", *Third Text*, p.54, p.89.

재적 발전에 기원한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주류(mainstream)' 아카이브[3]에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보완의 기제이자 저항의 의미를 강하게 지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통제, 소유권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독립(independent)' 아카이브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자치와 반(反)헤게모니적 정서를 띠면서 정치적·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표방하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최근 주류 아카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주류 아카이브와 더불어 아카이브 민주화의 전망을 공유하면서 아카이브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둘러싼 영국 기록학계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와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을 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풀뿌리운동으로서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한다. 후반부에서는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영국식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역기반 '마을' (공동체)

3)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논문들에서 '주류(mainstream) 아카이브'라는 표현이 영미권에서 종종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는 독립적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제도권내에서 전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아카이브를 통칭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주류 아카이브란 개념은 인종적 상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주민과 인종소수자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논할 때에 주류 아카이브를 'WASP' 아카이브라 지칭한다.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73. Spring/Summer 2010, p.85.

아카이브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영국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기록물 수집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의 법정 기록은 주(州) 단위의 공문서 보관소에서 보관해 왔으나, 지역에 관련된 (공문서가 아닌) 역사 기록물이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주로 당시 지역 기반의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이를 수집하였다.[4] 한편 민간 영역에서 공동체의 자율적·내재적 발전에 의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은 20세기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형성기, 확대기, 그리고 발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3단계 발전 국면은,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과 조응하고 있다. 우선 형성기는, 1960년대의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와 지방사 연구라는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어서 확대기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역사워크숍 운동'에서 시대적 동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그 주요한 사회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각 시대별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 확대, 발전의 국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4) David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Memories*, edited by Jeannette A. Bastian and Ben Alexander, Facet publishing, 2009, pp.30-31.

1)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기: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와 지방사 연구

영국에서 '공동체' 개념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부터 영국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사업(social works)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공동체는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됐다. 즉 이는 등장 당시 정책 입안자와 공공 조직이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매개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5]

1969년에 영국 내무성 주관으로 시작된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는 영국에서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12개 지역에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립'(self-help)을 독려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6] 초기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과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강조는 이후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는 연구 중심 프로젝트로서 공동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보고서를 생산해냈다. 지역의 사회사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분석들이 수행되었다. 연구 주제로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자연스레 지방사 연구 경향과 접목된다.

---

5) 1959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영허즈밴드 보고서"(Younghusband Report on Social Work), David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p.31; 〈http://www.infed.org/community/b-comwrk.htm〉, [cited 2013. 4. 16].

6) 〈http://www.infed.org/community/b-comwrk.htm〉; 〈http://discovery.nationalarchives.gov.uk/SearchUI/details?Uri=C9253〉, [cited 2013. 5.13].

1960년에 발전한 지방사 연구는,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다뤘다. 1947년 윌리엄 조지 호스킨스(William George Hoskins)가 레스터대학교에 영국지방사학과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지방사 연구는 지방사 연구방법론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면서 레스터 학파(Leicester School)를 형성,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활발한 연구를 수행했다. 호스킨스 이후 핀버그(H. P. R. Finberg)와 피티언-애덤스(Charles Phytian-Adams)가 학파의 위상을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핀버그는 지방사가 지역 공동체의 기원, 성장, 쇠퇴와 몰락을 묘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 개념에 관심을 가졌고, 지역 소재 다양한 공동체 연구에 기여했다.[7]

이 무렵 활성화된 지방사 연구에 영향을 받은 지역기반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컬렉션이 부재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박탈감을 해소시킬 대안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시작한다.[8] 이미 공공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의 사회사 큐레이터, 지방 정부의 아키비스트 등이 19세기 후반부터 지역의 역사적 사료들을 수집해 오긴 했지만, 비(非)공적 혹은 민간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들이 그들 자신의 내재적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영국의 많은 지역들에서 공동체발전 프로젝트와 지방사 연구의 영향을 받아 구술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공동체 관련 저술과 저널의 출간을 통해 사라져 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가족, 여성의 삶을 포함해서 종종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는 공동체의 삶을 기록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의 규모를 늘려 나갔다.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공동체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역적 차

7) 장세룡, 「탈근대와 지방사 연구: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대구사학회』 제93호, 2008, 303쪽.

8)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8. Issue 2, 2007, p.155.

원에서 뿐만 아니라 점차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런던, 맨체스터, 그리고 글래스고우 등에서 공동체 관련 유산 기관이 다수 설립되는 성과를 얻었다.

2)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대기: 아래로부터의 '역사워크숍 운동'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으로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공동체는 영국에서 역사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역사워크숍 운동'(History Workshop Movement)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범위를 지역 기반에서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한 집단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1970년과 80년대 영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역사워크숍 운동은, 역사로부터 소외되어 온 아래로부터의 역사, 사회사, 일상 생활사 또는 일반 대중의 삶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두고 지배 권력에 의해 이들을 대상화하는 주류 역사를 비판하였다. 소외된 피지배층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의 대표적인 피지배계층인 노동계급과 인종 및 성적 소수자들의 문화와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노동계급 및 인종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미 1960년대를 전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역사워크샵 운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노동계급의 경우,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노동사의 보존을 위해 1960년에 설립된 노동사연구협회(Society for the Study of Labour History)를 시작으로 몇 년 뒤에는 노동아카이브 소위원회(Labour Archives Sub-Committee)가 설립되었다. 또한 노동자계급운동 도서관(Working Class Movement Library)과 마르크스 기념도서관 등이 설립되어, 노동계급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중요한 역사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갔다.[9)]

영국 사회의 대표적인 인종 소수자에 해당하는 흑인 공동체의 아카이브는 1958년에 설립된 인종문제기구(Institute of Race Relations, 이하 IRR)가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국 역사에서 흑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에 그 선조들을 가지는 영국 이주민들의 문화와 역사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했다. 1980년대에 세워진 노샘프턴셔 흑인역사협회(Northamptonshire Black History Association)와 흑인문화아카이브(Black Cultural Archives, 이하 BCA), 그리고 1990년에 설립된 조지패드모어기구(George Padmore Institute, 이하 GPI)가 이러한 움직임을 계승해 나갔다.

이외에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 더욱 더 다양한 공동체의 관심을 대변하는 아카이브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젠더와 성적 취향을 반영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그것이다. 게이와 레즈비언의 운동과 삶을 기록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홀-카펜터아카이브(Hall-Carpenter Archives), 1989년에 설립된 브라이튼 아우어스토리(Brighton Our Story), 그리고 1984년 런던에서 설립된 후 1995년에 글래스고우로 옮긴 레즈비언 아카이브와 정보센터(Lesbian Archive and Information Centre)가 그 중요한 성과들이다.

3)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기: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콤마넷'

공동체가 지역 기반에서 시작하여, 계급과 계층 등 공통의 정체성 및 관심사에 기반한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무렵에,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서 1980년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기 침체와 주요 산업이 붕괴되면서 많은 공동체를 해체 위기에 빠뜨렸다. 위기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국 정부는 80년대 초에는 현실의 물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부 주도

9) Andrew Flinn, Ibid, p.156.

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공동체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즉 물질적 조건의 개선보다는 고용,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지원을 강조했다.[10] 무엇보다 공동체의 교육 자원이자 문화 자원인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이러한 해체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자신의 응집력을 지닌 역사적 삶의 공동체로 재생할 도구로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다. 해체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의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절감과 영국 정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 이 둘 공히 영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불러왔다.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무엇보다 1994년에 '콤마넷'(Commanet)을 탄생시킴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 주에 위치한 배틀리(Batley)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콤마넷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비영리 기술(technology) 지원단체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보존하고 이를 누구나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11] 이는 콤마넷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갖추질 못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손쉽게 기록물을 업로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미지와 문서를 스캔하고 오디오와 필름을 저장 · 보관하고 기록물은 메타데이터와 결합시켜 온라인상에서 검색 ·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콤마넷을 통해 수집된 공동체 아카이브는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으며, 콤마넷의 활동은 그 이듬해에 배틀리 공동체아카이브그룹(Batley Community Archives Group)의 설립을 이끌어냈다.[12]

10) 양재섭, 「영국 ·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43호, 2007, 7쪽.

11) David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p.32.

배틀리의 사례 외에도, 웨스트요크셔 주의 햄스워스와 디스트릭 공동체아카이브(Hemsworth and District Community Archive, 이하 HDCA)는 콤마넷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한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이다. HDCA는 콤마넷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역 공동체인 햄스워스 석탄조합(Hemsworth Coalified Partnership)과 함께 활동하였다. HDCA는 석탄 지역의 공동체들을 기록화하고 지역의 기록물과 구술사를 수집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재생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3] 이외에도 콤마넷은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영국에서는 정부 고문기관인 영국유산그룹(English Heritage)을 포함해 131개의 지역 단체들과 유산 협회, 아카이브, 박물관 등이, 그리고 국외에서는 캐나다와 남동 아프리카의 문화유산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14]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등장한 콤마넷은, 이렇듯 지역 공동체들이 공동체 재생을 위한 일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산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3.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지는 '풀뿌리운동'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지역 주민 및 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그들 스스로 아래로

12) David Mander, Ibid, p.32.
13) David Mander, Ibid, p.33.
14) David Mander, Ibid, p.33. 콤마넷은 2008년 6월에 문을 닫았지만, 콤마넷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지원되고 광범위한 단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부터 자생적으로 벌이는 자치와 기록의 활동, 즉 아카이브의 '풀뿌리운동'적 성격을 드러낸다. 초기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에 있어 자립과 구성원 참여에 대한 강조는 이후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능동적인 역할과 자율성 강조로 나타났다.[15] 공동체는 지방사 연구라는 사회적 요구에 자율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해 나갔고 역사워크숍운동의 영향을 받아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운동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산물인 콤마넷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공동체의 주체성과 자율적 통제를 보다 고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 1〉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표의 정리로부터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역사적 계기들과 함께 공동체 자체의 기록을 향한 중요한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 흐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앤드류 플린(Andrew Flinn)과 메리 스티븐스(Mary Stevens)가 '독립(independent)' 공동체 아카이브로 칭하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수집되고 수집된 컬렉션의 이용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이 일정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는 아카이브"로 정의된다.[16]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영국식 아카이브 정의는 사실상 북미나 호주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공동체 아카이브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즉 수집 주체가 공동체가 아니고 관리 및 통제 주체가 주류 아카이브인 경우에도 공동체를 그 수집 대상으로 한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로 간주한다. 반면 '공동체의

15) David Mander, Ibid, p.31.

16) Andrew Flinn, Mary Stevens, Elizabeth Shepherd,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ival Science* Vol. 9. Issue 1-2, 2009, p.73.

(*of* the community)' 기록물을 강조하는 영국학자들은, 캐나다의 경우에 관리 및 통제 주체로서 지방 행정기관인 시나 마을 단위의 아카이브를 공동체 아카이브로 언급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들의 구조와 콘텐츠가 오히려 영국의 지방 공공아카이브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17]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공동체 아카이브가 정치·문화 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측면에서는 영국과 흡사하나, 공동체 아카이브 개념의 실제 쓰임새는 캐나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18]

〈표 1〉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의 역사적 국면과 특징

시기	역사적 맥락	아카이브 구축	공동체 아카이브 특징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성기(1960년대)	공동체 발전 프로젝트, 지방사 연구	·공동체아카이브 프로젝트 ·구술사프로젝트 ·공동체 저술/저널 작업	·공동체 개념 등장 ·지역 기반 공동체 아카이브 형성
공동체 아카이브의 확대기 (1970, 80년대)	역사워크숍 운동	·노동 아카이브/도서관 확산 ·인종소수자(주로 흑인)/성적 소수자 아카이브 확산	·피지배계급 및 사회 소수자 등 공유된 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기(1990년대)	도시재생 프로젝트, 콤마넷	·도시 정책·재정적 간접 지원 ·공동체 내부 콤마넷(소프트웨어) 구축	·공동체 주체의 아카이브 활성화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렇듯 공동체 스스로에 의한 아카이브 구성을 강조하면서 북미나 호주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와는 접근법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 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고유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17) 그 대표적 사례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공동체 아카이브인 '미션공동체아카이브'(Mission Community Archives)와 '나내모공동체아카이브'(Nanaimo Community Archives)를 들고 있다.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Vol. 16. Nos. 1-2, January-March 2010, p.60 참고).

18)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60.

수 있겠다. 첫째, 공동체 자생의 욕구에서 출발하는 아카이브 추진력과 지향. 둘째, 수집 대상이 아니라 수집 주체로서의 공동체의 복원.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反)헤게모니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이다. 영국 특유의 공동체 아카이브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해 보자.

1) 공동체 자생의 아카이브 구축과 지향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공동체의 내재적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중반 무렵 자립적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들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가 주류 아카이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자각하려 애썼던 정황이 포착된다. 이에 공동체 자생의 아카이브가 그 대안으로서 구축되어 나간다. 개별 공동체에서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의 추진력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지역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공동체의 내재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미의 주류 문화유산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다큐멘테이션 전략이나 토털 아카이브에서 기관 컬렉션에 없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부재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각 공동체의 개별성에 기반하여 주류 아카이브와는 다른 (또는 종종 대립되는) 지향점을 표방하면서 자율적이고 분산적으로 구축되어 나간다. 이러한 영국식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식적인 주류 아카이브와 협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연계성을 지니지 않은 채로 자율과 자치를 강조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유연한 운영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아카이브 구축의 추진력과 지향점을 언제나 공동체 내부에 둔다는데 공통점을 갖는다.[19]

영국의 남서지역에는 적어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공동체가 현재 20개 이상 존재하는데, 각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원본, 지도, 사진, 구술사 테이프 등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해 오고 있다. 캠브리지셔(Cambridgeshire) 주에는 50여개의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퍽(Norfolk) 주에는 약 30여개 정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적 자발성이라는 내적 추진력과 지향점을 가지고 공동체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있다.[20]

2) 수집의 대상이 아닌 수집 주체로서의 공동체 복원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수집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앞서 살핀 것처럼, 공동체 역사가 주류 아카이브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아카이브에서 공동체의 기록물을 보존하더라도 공동체가 기록 생산의 출처(provenance)이자 주체(subject)가 아니라 타자(지배층)의 관점에서 대상(object), 즉 감시 및 관찰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어 온 것에 대한 비판에서도 문제의식의 출발이 있었다. 공동체가 수집 주체가 아닌 수집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역사 기술에 있어 타자화가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류적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를 위한' 아카이브적 접근보다는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라는, 대상화된 아카이브적 태도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소속 원주민들이 기록 기술(description)의 대상이 되어 그들 스스로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된, 북미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례[21],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기록화

19)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153.

20)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_34_path__.aspx〉, [cited 2013. 5. 6].

에 대한 연구[22]는 공동체를 수집 대상으로 간주하는 주류 아카이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이들 사례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내용에 원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록하기 위해 수집한 기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집 대상이나 소재로서 공동체에 접근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발생한 주류 아카이브의 폐해와 실패 경험은 영국 공동체로 하여금 공동체의 진정한 복원과 기록 작업을 위해서는 아카이브의 수집 주체로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자신들의 방식(on their own term)'으로 기록화하고 이를 언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23]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도모했던 콤마넷의 경우를 보자. 콤마넷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가족 기록 등을 직접 수집하도록 고무했으며, 콤마넷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술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 공동체 구성원들 자신이 손쉽게 기록물을 서버에 올리거나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캠브리지셔 주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역의 공동체 그룹에 의해 생산되고 관리되는 사진, 문서, 오디오, 비디오의 디지털 콜렉션"으로 정의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생산 및 수집에 있어 공동체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24] 흑인문화아카이브(BCA)의 경우도 비슷한 관점에 기반한다. 제대로 된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이면에 흑인들이 주체적

---

21) Matthew Kurtz, "A postcolonial archives? on the paradox of practice in a northwest alaska project" *Archivaria* 61, 2006;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15쪽.

22) Jeanette Bastian, *Owing Memory: How a Carri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s Its History*, Libraries Unlimited: Westpor, 2003; 윤은하, 위의 글, 15쪽.

23) Andrew Flinn, Mary Stevens, Elizabeth Shepherd,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p.73.

24)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510_path__0p6p63p62p.aspx〉, [cited 2013. 3. 27].

으로 수집한 아카이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초기 BCA의 콜렉션은 당시 기관 설립의 선구자, 렌 개리슨(Len Garrison)의 개인수집 아카이브에서 출발하고 있다. 흑인의 경험을 '제대로' 기록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개리슨의 개인 아카이브는 주류 아카이브에서 찾아보긴 힘든 흑인 공동체의 자립운동과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발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25]

3) 공동체내 아카이브의 자율 통제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율적 통제에 있다. 영국 공동체 내부의 자율 통제권은, 주류 아카이브에 기록물을 대부분 기증이나 양도의 형태로 통제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관 협약을 체결하는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향과는 상당히 다르다.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과거 주류 아카이브의 폐해나 검열에 대한 경험은, 각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컬렉션에 대한 통제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주류 아카이브와의 연계 및 지원이 컬렉션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시설과 기록물을 수집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신 제도 간섭과 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초래해왔던 까닭이다. 더불어 초기 공동체의 형성 단계에서 구축된 공동체의 자립 사상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공동체 자율 통제의 사례들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흑인 공동체 아카이브이자 연구센터인 조지 패드모어 기구(GPI)는, 자율 조직(self

25) Andrew Flinn and Mary Steven, "'It is noh misrt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pp.13-14.

organization)임을 표방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의 독립성과 통제가 위협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GPI의 중요한 원칙이다.[26] 또한 인종문제기구(IRR)의 경우, 2006년에 공식적인 출판물과 저널 등 도서자료가 워익대학(University of Warwick)으로 옮겨갔지만, 흑인 역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대로 IRR이 보관하며 자율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50개 이상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참여하고 있는 캠브리지셔 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 이하 CCAN)는, 각 아카이브에 대한 개별 공동체의 소유권과 권한을 존중한다. 비록 공동체들이 합의된 체제 내에서 운영되긴 하지만 개별 공동체들은 각각 자신들의 방법과 내규 그리고 실무를 바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27] 노퍽 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Norfolk Community Archive Network, 이하 NORCAN) 역시 참여 공동체 그룹의 자율적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참여하여 웹 기반의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를 관리하고 있다.[28]

영국에서 자율적 공동체 아카이브의 통제 형식 또한 유연하고 다양하다. 전적으로 주류 아카이브에 독립적인, 그리하여 주류 아카이브로부터 완전한 자율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주류의 제도화된 아카이브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공동체 기록물의 보관과

---

26) B. Alleyne, *Radicals Against Race: Black Activism and Cultural Politics*, Berg, 2002. pp.27-30; L.K. Johnson, John La Rose, Obituary, *Guardian*, 4 MARCH, 2006; B. Alleyne, Obituary: John La Rose(1927-2006), History Workshop, 64, 460-4; Andrew Flinn and Mary Stevens, "'It is noh misrt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p.9, 재인용.

27)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510_path__0p6p63p62p.aspx〉, [cited 2013. 4. 2].

28)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892_path__0p3p17p.aspx〉, [cited 2013. 4. 2].

보존을 주류 아카이브에 위임하여 부분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대부분 공동체 아카이브는, 제도화된 주류 아카이브나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29] 이러한 독립적인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성에 의존하여 대부분 운영된다. 한두 명에서 스무 명 안팎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30] 자발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이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 원천에 제도화된 기관들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인해, 강한 자치의 열망과 의사결정 및 통제에 있어 자율성의 논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4) 반(反)헤게모니적 내러티브 강조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는, 대체로 제도화된 주류 헤게모니와의 정치적 투쟁 과정이라는 역동적 관계 속에서 발전해왔다. 공동

29) 많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류 아카이브와의 연계없이 국가의 아카이브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자각 속에서, 영국의 국가기록원(TNA)은 2003년 소외된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팔장끼기'(Linking Arms)를 도모한다. 또한 2004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위원회'(MLA)의 아카이브 태스크 포스(Archives Task Force) 보고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소외에 대한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논문의 제4장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모델'을 참조하라.

30) 현재 영국에는 3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능동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ommunity Archives and Development Group,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2007,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575_path__0p6p63p61p.aspx〉, [cited 2013. 3. 21].

31) Andrew Flinn and Mary Stevens,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hi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p.7.

체의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역사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의해 대변되고, 이들 아카이브는 종종 사회 변혁의 교육 의제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하게 쓰였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렇듯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이 지속시켜 온 공공의 인식에 도전하는 '반헤게모니(counter-hegemony)' 내러티브를 생산하면서,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반헤게모니 내러티브는 지역성 보다는 공통의 관심에 기반한 피지배계급의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 흑인 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급진적 반(反)제국주의자인 조지 패드모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조지 패드모어 기구'(GPI)는 전통 마르크스주의, 인터내셔널리즘, 반제국주의, 그리고 반인종주의를 이론적으로 견지하면서 반헤게모니 내러티브를 강조한 대표적인 공동체 아카이브이다. 기관 설립자 로즈(John La Rose)는 국제적으로 반인종주의와 반제국주의 활동에 적극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GPI에서는 수집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용 소책자, 예를 들면, 『아카이브 탐색』(*Exploring Archives: The George Padmore Institute*)을 개발했는데, 반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흑인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32]

인종문제기구(IRR)는 스스로를 반제국주의 활동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천명한다. 반인종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전문 연구 집단을 자처하며 급진적인 저널, 『인종과 계급 *Race and Class*』을 출판하기도 했다. 또한 「저항에서 반란으로: 영국에서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캐리비아인의 투쟁」이라는 에세이를 출판하여, 노동사 혹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에서조차 배제된 흑인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IRR의 반인종주의를 표방한 교육용 도서 시리즈는 특히 흑인 공동체에 의해 생산된 상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기록들과 지난 50년 동안

32) 〈http://www.georgepadmoreinstitute.org/〉, [cited 2013. 4. 13]; Andrew Flinn and Mary Stevens, Ibid, pp.8-10.

의 흑인 투쟁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담았다. 기록물의 평가 선별 기준으로는 정치적이고 투쟁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반)인종주의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계와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원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3]

흑인문화 아카이브(BCA)는 GPI나 IRR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적 반인종주의적 캠페인과 연계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캐리비안 자손들의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흑인의 문화적 범-아프리카주의를 내세우면서 반헤게모니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BCA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신화, 즉 무지하다는 편견이나 불신을 그들 자신의 진정한 역사의 구현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특히 BCA는 기존의 주류 역사가 영국 사회와 서구 문명의 발전에 있어 흑인의 기여를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백인 중심의 보편적 내러티브에 저항하는 반(反)헤게모니 서사를 강조한다.[34]

4. 최근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모델의 부상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영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양적 증대와 이로 인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주류 아카이브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전개해 왔다. 이것이 앞서 역사적 단계에서 확인했던, 90년대 이후까지 진행한 공동체

33) 〈http://www.irr.org.uk/〉, [cited 2013. 4. 17].

34) 〈http://www.bcaheritage.org.uk/about/〉, [cited 2013. 4. 20]; Andrew Flinn and Mary Stevens,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hi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pp.12-15.

아카이브의 내적이고 자생적 성장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에 해당한다.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 거버넌스 흐름을 형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위원회(MLA)'의 역할이 컸다. 이 위원회는 아카이브 태스크포스(Archives Task Force, 이하 ATF) 보고서를 2004년에 발표했는데 여기서 '아카이브 게이트웨이(Archives Gatewa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일종의 범국가적 아카이브 네트워크망으로, 주류 아카이브의 온라인 콘텐츠와 함께 현재 제도화된 문화기관과 어떠한 상호연계를 가지지 않는 소외된 많은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을 뒀다.[35]

영국 정부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주류 아카이브에 있는 기록물만큼 사회에서 중요"[36]하다는 인식아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과 컬렉션의 장기 보존 및 지속성에 있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독립적인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주류 아카이브가 공동체내 자율적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 아카이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협치) 모델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별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최상위 수준인 국가 차원에서 영국 국가기록원(TNA)이 주도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지원체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의 구축과 활동,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이 활발한

35) David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p.34.

36) Archives Task Force, *Listening to the Past, Speaking to the Future. Report of the Archives Task Force*,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www. mla.gov.uk/what/publication/2004〉; David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p. 34.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하위 단계에서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별적 협업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 그것이다. 이제부터 이들 세 가지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구성 방식을 살펴보겠다.

1) 범국가 차원의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그룹'

영국 국가기록원은 2003년에 소외된 공동체 아카이브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팔짱끼기(Linking Arms)'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영국 정부의 아카이브 정책에 반영된 사회적 소외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로부터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소외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기관의 서비스 촉진을 그 목표로 하였다.

영국 국가기록원은 '팔짱끼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체 접근(Community Access to Archives Project, 이하 CAAP)'이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ATF 보고서에서 제안한 아카이브 게이트웨이에 공동체 아카이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CAA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CAAP는 먼저 영국의 범국가적 아카이브 네트워크, 즉 아카이브 게이트웨이에 공동체 아카이브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어서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 관계를 위한 모범적 실무방침을 개발하는데 그 중점적 역할을 두었다.[37]

CAAP 프로젝트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범국가적 아카이브에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먼저 두 지역, 즉 런던의 해크니(Hackney) 자치구와 웨스트요크셔 주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했다. 파일럿 연구를 통해 CAAP는 지역에서 아카이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들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

37) David Mander, Ibid, p.34.

양한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들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했다. 웨스트요크셔 주의 경우, 지역의 여러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웨스트요크셔 아카이브 서비스'란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할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CAAP는 통합 아카이브에 참여할 핵심 그룹에 대한 아카이브 관련 전문 컨설팅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해크니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체들의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해크니 박물관과 연동되는 네트워킹을 구축했다. 이러한 초창기 파일럿 연구를 통해 CAAP는 실제 공동체 내부의 요구에 맞추어 아카이브 구축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였다.

CAAP는 또한 기관 중심의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모범적 실무를 제안하는 여러 워크숍을 개최했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에 열린 〈다리놓기: 공동체와의 연계를 발전시키기〉(Building Bridges: Developing Links with the Community)라는 제목의 워크숍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본질을 제고하고 어떻게 주류 아카이브가 공동체 아카이브와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삼았다.[38] 주류 아카이브의 전문가들과 공동체 리더들이 함께 참석한 이 워크숍은 양자가 서로 소통하고 관심사 및 요구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주류 아키비스트들은 공동체와의 협력 구축에 있어서 실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실제 CAAP의 최종보고서는 이를 반영하여 두 주체간 협력 기금마련을 위한 조언, 공동체 아카이브와 협업하는 주류아카이브의 평가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모범실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포함되었다.[39] CAAP는 이처럼 파이롯트 프로젝트 수행 및 아카이브간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38) David Mander, Ibid, p.37.
39) David Mander, Ibid, pp.37-38.

뒤, 2005년에 공동체아카이브발전그룹(Community Archive Development Group, 이하 CADG)으로 재구성된다.

CADG는 영국 국가아카이브위원회(UK 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감독과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공동체 아카이브 영역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하고 모범실무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 공동체 아카이브 조직들의 협업을 도모해 이들 간에 정보와 관점의 상시 교환을 위한 일종의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CADG의 출범 이후에 주요 성과는 공동체 아카이브 웹사이트 개설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웹사이트는 아카이브, 공동체 그룹,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모범실무를 공유하며 협업을 도모하고 이들 간의 소통 네트워크로서 온라인 토론 포럼으로 구성되었다. 이 웹사이트는 현재 영국에서 340개가 넘는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아카이브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술사, 아카이빙 관련 이슈, 기금 마련, 컬렉션 관리를 위한 모범실무, 그리고 아카이브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 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사안, 언론 보도, 그리고 구인·구직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자들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별로 주류 아카이브의 전문 아키비스트의 명단을 제공하면서 이들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40]

CADG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41]에 대한 2007년 분석 보고서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 내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와 필요성을 실제 사례연구[42]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

40) 〈http://www.communi3.tyarchives.org.uk/page_id__1065_path__0p1p.aspx〉, [cited 2013. 3. 20].

41)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_61_path__.aspx〉, [cited 2013. 4. 25].

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외에도 우수공동체 아카이브를 선별 수상하여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아카이브의 발전과 거버넌스 체제 내에 이들 아카이브의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대중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협력 관계 구성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43] 현재 CADG는 2009년부터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 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이란 명칭으로 활동을 계속해 가고 있다.

정리하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영국 국가기록원의 주도하에, 초기에는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된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협력 관계는 이후 다양한 명칭의 공식 그룹 활동을 통해 지속되어 나갔다. 각 그룹들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중장기적 비전하에 단계별 목적을 표방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발전적 해체를 거듭하면서 세부 전략들을 추진해 나갔다. CAAP는 초창기 파일럿 연구로 시작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협력 관계를 위한 모범적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뒤이은 CADG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수렴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

42) CADG는 2006년에 8개 공동체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사례연구(case-study)를 수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_62.aspx〉를 참조하라.

43) 2007년 여름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참석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요구사항 10가지를 도출했다.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1. 기록물 저장장소(storage)에 대한 자문과 도움 2. 기금신청(특히 Heritage Lottery Fund)에 대한 지도 3. 법적 이슈에 대한 지도 4. 기술장비(technical equipment)에 대한 자문 5. 디지털화에 대한 도움 6. 훈련 및 교육 7. 지방 (문화유산) 기관과의 관계망 발전 8. 카달로깅에 대한 조언 9. 타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정보교환 10. 기타 기금마련에 대한 조언 등이다.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708_path__0p4p.aspx〉, [cited 2013. 4. 26].

동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공동체의 아카이브 구축을 보다 설득력 있게 독려했다. 현재 활동 중인 CAHG는 두 전신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최신의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면서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협력 관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최근 발전은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에서 돋보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캠프리지셔 주와 노퍽 주의 주정부에서 주도한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Community Archive Network)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캠브리지셔 주 의회에 의해 구축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선구적 네트워크, '캠브리지셔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CCAN)를 보자. 캠브리지셔 주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폭넓은 공동체 그룹을 연계하고 주 전체 범위의 통합된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를 발전시켰다. 공동체 유산은 사진과 문서의 형태로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종종 소실되어 이후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파악했던 CCAN은, 이 다양하고 쉽게 소실되는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이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AN에 의해 디지털로 연계된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콤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록물을 서버에 올리고 주민들이 광범위한 컬렉션을 이용하고, 아카이브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상호 실무적 조언들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의 특성은 '탈보관주의'[44]에 입각하여 컬렉션의 보관과 관리가 공

44) '탈보관주의(post-custodianship)'란, 기록이 가지는 물리적 실체나 장소성보다는

식적 아카이브에서 발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물이 생산된 조직 내에서 분산되어 보관·관리되고 이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치와 자율성,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통제권을 보장받은 공동체 그룹들은 긴밀하게 주 의회와 연계하고 주류 아카이브의 전문 아키비스트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CCAN은 아카이브 연락책 담당자를 두어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아카이브 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무하면서, 각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물 보존을 위한 실무 조언들을 제공한다. 만약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더 이상 공동체 아카이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디지털 컬렉션과 이것에 대한 권리를 캠브리지셔 주 의회에 넘기도록 CCAN 정책은 규정하고 있다.[45] 2006년 유산로터리기금(Heritage Lottery Fund, 이하 HLF)을 받아 시작된 CCAN은 현재 50여개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금 지원이 끝난 2008년 이후에도 자체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반영구적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노퍽 공동체아카이브 네트워크(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 이하 NORCAN)'의 경우는, 2009년 6월에 끝난 노퍽 주의회의 '지역공동체 역사를 아카이브하기'(Archiving Rural Community History, 이하 ARCH)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노퍽 주 공동체 그룹들의 웹사이트를 연계

기록이 생산되어 존속되는 과정 전체에 존재하는 논리(생산배경, 내용, 구조 등)를 관리의 기본 대상으로 상정하는 관점을 뜻한다. 예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기록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현정, 「공공기록 영구이관 체계의 개념적 재검토」, 『제3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11, 167쪽. 〈http://www2.archivists.org/glossary/terms/p/postcustodial-theory-of-archives〉 참고).

45) Community archives in Cambridgeshire: case-study showing 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510_path__0p6p63p62p.aspx〉, [cited 2013. 4. 26].

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통합 아카이브이다. NORCAN은 노퍽 주의회와 자매기관인 CCAN과 협력을 맺어 활동하는 자발적인 조직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모든 공동체들 간에 링크를 제공하여 집단적 목소리를 생산하고, 노퍽 주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NORCAN은 노퍽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생활과 유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 문서,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기록물로 구성되는 웹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앞서 NORCAN과 CCAN의 대표 사례들 외에도, 현재 '아이리쉬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Irish Community Archive Network, 2009)'[46]와 '남동 에섹스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South East Essex Community Archives)[47] 등이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탈보관주의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을 설계하고 있다.

3)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파트너십'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더하여, 영국은 개별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아카이브 간에 양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메리 스티븐스와 앤드류 플린, 그리고 엘리자벳 세퍼드(Elizabeth Shepherd)에 의해서, 크게 다섯 가지 영역 즉 보관, 수집, 큐레이션과 배부(dissemination), 자문, 그리고 컨설팅의 영역에서 양자의 협력 모델이 나오고 있다.[48] 이 모델링은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

46) 〈http://www.museum.ie/en/list/outreach2-country-life.aspx?article=9428db85-6419-413e-83aa-efdb573d1c6c〉, [cited 2013. 4. 25].

47) 〈http://www.seeca.org.uk/page_id__75.aspx〉, [cited 2013. 5. 12].

48)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pp. 64-76.

브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세부 전략이 작동하는 가장 실무적인 거버넌스의 영역을 짚고 있다. 이들 영국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섯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관'을 보자. 기관 중심의 주류 아카이브가 보관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신 공동체 생산 컬렉션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넘겨받는 관례적인 보관 협약을 포기하고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접근권을 보장하는 '융통성 있는' 보관 협약을 제안한다.[49] 과거에 공동체들은 주류 아카이브가 보관 협약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컬렉션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보관 협약을 꺼려왔다. 반면 주류 아카이브는 공공기금을 사용하여 공동체 컬렉션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기록물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려는 위험을 막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결국 '융통성 있는' 보관 협약이란, 공동체 아카이브의 컬렉션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공동체가 지니면서 동시에, 최소 10여년 정도 이를 공적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인종소수자의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퓨처 히스토리(Future Histories)는 이러한 방식으로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등 두 개 기관과 보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컬렉션을 보관할 물리적 공간을 제공받는 동시에 접근과 대여에 대한 결정권과 콘텐츠의 배부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수집'에서의 파트너십은 이렇다. 주류 아카이브는 보통 공동체 기록물 수집에 대한 접근 장벽이 존재한다. 수집 단계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파트너십은 접근 장벽을 낮추고 공동체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기록물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어 기존의 기관 컬렉션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마찬가

49)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64.

지로 주류 아카이브가 공동체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50]

셋째, '큐레이션'과 '배부'에 있어서는 주류 아카이브의 전문 큐레이터나 아키비스트들은 대체로 전시나 이벤트 기획자이기도 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큐레이션과 배부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공동체들이 주류 아카이브의 기획 전시나 이벤트에 참여하면 공동체를 대중에게 알리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반대로 주류 아카이브는 다양한 공동체 기록물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이 또한 양자의 쌍방향적 협력 관계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2008년에 런던 박물관의 기획전인 '바깥 가장자리(Outside Edge)'전을 준비하면서, 흑인 성적 소수자들(LGBT) 아카이브인 '루커스(rukus)'가 공동체 컬렉션에서 아카이브를 선별하여 전시하는데 집중하면, 박물관은 루커스와 전시 기획자간에 연락 및 행정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덧붙여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과 루커스가 하루 워크숍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51]

큐레이션과 배부에 더해서, 주류 아카이브가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파트너십 형태로서 아카이브 관리 전반, 즉 보존, 디지털화, 다큐멘테이션, 저작권 및 컬렉션의 활용 등에 대한 '자문'을 들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공동체가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로부터 자문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제는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공동체가 주류 아카이브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있다. '커넥팅 히스토리Connecting Histories)' 프로젝트의 경우에, 공동 참여한 버밍햄 시 아카이브, 버밍햄

50)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66.
51)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p.66-67.

대학의 교육학과, 워윅대학의 사회학과, 그리고 블랙 패스트(Black Pasts)와 버밍햄 퓨처그룹(Birmingham Future Group) 등은 협업하여 공동체들에게 아카이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워크숍, 강의, 세미나를 통해 제공했다. 또한 온라인교육 자료(예를 들어 「아카이브 만드는 법(*How to Create an Archive*)」)를 개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에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전문 자문의 지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출신의 피교육자들을 아키비스트로 양성하는 인적 자원 개발도 지원하였다.[52]

마지막으로, '컨설팅'이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류 아카이브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찾는 것처럼, 주류 아카이브 역시 컨설팅 과정에서 공동체 아키비스트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견지에서 보면, 공동체의 '활동가-아키비스트(activist-archivist)'가 제공하는 특별한 공동체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은, 바로 그 특수한 공동체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아키비스트의 컨설팅 자체는, 주류 아키비스트에게 공동체 아카이브 업무의 현실적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53]

6. 결론: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한국적 함의

국내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은, 1990년대 접어들어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52)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p.67-68.
53) Mary Steven,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Ibid, pp.68-69.

더불어 기록학계에서는, 초기에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단순히 일상 아카이브의 다양한 소재 중 하나로 간주하는 소재주의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접근법 아래에서는 전통적 생활공간으로서 '마을'을 정의하면서 고전적·낭만적 시각에서 마을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다 최근에는 푸코의 미시정치적 논의에 영향을 받고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마을 공동체 복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근거해 국내 학계와 현직 종사자들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고유한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규모의 기록관리적 시각에서는 아래로부터 구성되는 마을 아카이브 분석이나 아카이브와 공동체성을 연결하는 관점을 얻을 수 없다고 보면서, 아예 기록학적 메타체제에 개의치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탈규칙적, 그리고 자치의 모델을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였다.

최근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의 특이점은, 이렇듯 초기의 소재주의 및 전통적인 공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방식을 공동체 아카이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벗어나 공동체의 자율과 자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고유의 서사를 강조하고 그에 맞는 아카이브 방법론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90년대 말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생적 발전 경향과 견주어 보면, 상당히 비슷한 논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미산과 풀무 마을아카이브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적을 갖고 구축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와 그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무엇보다 이 두 곳의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자 마을 주민 스스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는, 영국이 이미 1990년대에 본격화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공동체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최근 국내의 자율주의적 흐름과 부상 역시 체계화된 분류체계 도식 및 메타데이터를 등한시함으로써 상대주의적이고 분자적이며 폐쇄적인 아카이브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을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광범위하게 서비스하려는, 즉 최근 영국형 '개방'과 '협치'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까지 영국의 사례 분석에서 본 것처럼, 영국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등장한 콤마넷의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에 있어서의 역할,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지원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아카이브 정책,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역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개별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가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하는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모델 등은 우리에게 주류 기관과 공동체가 '협치'에 근거하여 민주적 아카이브의 모델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모로 중요한 함의를 던지다. 특히 영국의 다섯 가지 영역 (보관, 수집, 큐레이션과 배부, 자문, 그리고 컨설팅)에서의 파트너십 모델은,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치 모델, 그 중에서 마을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적 실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서 보자면,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경험과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최근 거버넌스 모델

은 우리에게 이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함의를 주는 셈이다. 물론 영국형 거버넌스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lities and Practices in the UK's Community Archives Movement

Lee, Kyong Rae · Lee, Kwang-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ge of community archives movement in the UK. By doing so, it draws some implications of the UK case for the community archives movement in Korea. The UK'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s a part of grassroots movement are characterized by participation, autonomy, and self-help of community members. Along with the appearance of the concept of 'community', the UK has experienced the revitalization period of community archives in the social context of community-ba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cently, the UK's community archives have transformed themselves into building a 'governance model' relying on the partnership with mainstream archives. In particular, the UK model of community archives is based 'on their own ways' with their autonomy as a product of intrinsic development initiated by communities themselves. The character of the model of this type is very analogous to the nature of *maul* community archives movement in Korea. Since the early 2000s, however, the UK model of community archives has been evolving into a way of building governance through their appropriation of the skills and methodologies from mainstream archives without endangering the autonomous essences of community archives themselves. We need to note the point of local researchers' view in

archival science who have tried to seek out the methodology for building *maul* community archives with regard to openness and collaboration. In this respect, a shift in archival principle in the UK would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generating the locally based community model.

Key words : community, community archives, grassroots movement,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records of governance, governance model,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mmanet, community archives in the UK